

한국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 및 그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단상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박서현

1.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와 오늘날의 생산의 문제

불안정한(precaious)이라는 형용사와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라는 명사가 합해진 프레카리아트(precaariat)는 불안정 노동계급으로 번역될 수 있다.¹⁾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사람 즉 불안정 노동자가 프레카리아트라면 비정규직 교수와 연구원, 강사와 독립연구자, 대학원생 등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연구자로 여겨지는 대다수의 사람을 프레카리아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소수의 정규직 교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연구자가 불안정 노동을 하는 연구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노동자만이 프레카리아트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당수의 인구가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인구의 상당수가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아울러 설령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성과·실적 등과 무관하게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경우는 정말 소수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에서 비정규직만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보다 일반적으로 나은 조건에 있더라도, 대부분의 정규직 역시 불안정한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²⁾

나아가 업적 평가 체제 하에서 승진과 연구비를 위해, 아니 그전에 찢리지 않기 위해 논문을 매년 몇 편 이상 출판해야 하는 정규직 교수 역시 어떤 생산성 압박 하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불안정성의 정도와 성격은 다르지만 한국의 대다수 연구자가 불안정한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불안정성이 야기하는 효과가 예컨대 어떤 누군가에게는 당장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식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찢리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논문을 써야하는 식으로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연구자가 한국에서 오늘날 일종의 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사실

1) 프레카리아트 개념에 대해서는 가이 스탠딩, 『프레카리아트』, 김태호 옮김, 박종철출판사, 2014, 23쪽 참조. 스탠딩은 프레카리아트를 노동계급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같은 책 23쪽). 스탠딩의 프레카리아트 개념에 대한 비판에 그 의미의 변형 등에 대해서는 문혜림, 「프레카리아트 담론과 마르크스 계급론: 프롤레타리아트 개념과 계급 규정에 관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18(4), 2021, 158-162쪽 참조.
2) 정규교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강화 경향에 대해서는 임순광, 「대학시간강사는 프롤레타리아인가?」, 『레프트대구』, 2010, 176쪽 참조.

보다 더 자유롭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했던 것, 연구자가 됐던 것이 아닌가? 대다수의 연구자가 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떻게 도래한 것인가?

연구자를 포함한 인구의 상당수가 프레카리아트로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과 무관할 수 없는 이 문제는 물론 오늘날의 생산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를 성찰하기 위해서도 오늘날의 생산의 문제, 생산의 변화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이 글에서는 생산의 변화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그저 생산의 변화를 설명하는 어떤 이론에 입각하여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소개하고³⁾ 이러한 변화 하에서 연구자를 포함한 상당수 인구의 프레카리아트화가 심화·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확인은 연구자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오늘날의 생산의 변화와 자본의 역할 변화

먼저 오늘날 생산의 핵심적 장소가 어디인지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대량생산공장인가? 물론 오늘날 대량생산공장은 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생산공장만이 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생산의 핵심적 장소는 대량생산공장이라기보다는 사회 자체 혹은 도시 자체라고 해야 될지 모른다. 이는 지식·정보·언어·기호·코드·정동·이미지 등 비물질적 생산수단을 통해서 비물질적 생산물을 생산하는 비물질노동이 농업노동이나 산업노동 같은 물질노동만큼 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오늘날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스마트팜이나 적시생산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식·정보 등은 물질노동에도 적용되어 물질노동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주체에 체화되어 있거나 인터넷과 같은 연결망 속에 존재하는 비물질적 생산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생산은 대량생산공장만이 아닌 사회 자체에서 혹은 인구의 상당수가 살아가는 메트로폴리스로서의 도시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생산의 핵심적 장소는 대량생산공장이라기보다 사회적 공장으로서의 메트로폴리스라고 할 수 있다.⁴⁾

다른 한편에서 노동시간이 오늘날의 생산에서 생산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 기준이 되는가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을

3) 이 이론은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그의 제자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가 대표하는 네오오페라이즘(Neo-Operaismo) 혹은 자율주의(Autonomism)이다.

4) 물론 이는 대량생산공장이 더 이상 생산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메트로폴리스가 오늘날 생산에서 헤게모니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으로 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는 가치법칙이 오늘날 여전히 타당한가를 물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스마트폰앱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드는 시간과 앱을 구현하는 데 드는 시간을 굳이 비교해본다면 인기 있는 스마트폰앱이 가져오는 부가가치와 관련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큰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사회의 상당수의 일자리에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불되며 최저시급의 인상을 둘러싼 투쟁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노동시간이 생산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적 기준으로 여전히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노동시간이 생산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적 기준이 더 이상 될 수 없는 것은 오늘날 생산이 전술했듯 비물질적 생산수단을 사용하여 비물질적 생산물을 생산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생산수단이 생산에 적용되어 물질적 생산 역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노동시간을 둘러싼 투쟁이 여전히 중요한 투쟁임은 분명하더라도, 오늘날 노동시간이 생산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나아가 오늘날 경향적으로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의 구분이 차츰 소멸하고 있다. 연구자의 노동 즉 연구노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 현상은 비물질노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단순히 책상머리에 앉아 기존 문헌을 읽고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같은 전공의 동료와 대화하면서, 때로는 비전공자인 사람과 재밌는 얘기를 나누면서, 때로는 소설을 읽으면서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착상을 하게 되어 좋은 논문 한 편을 쓸 수 있듯이, 지식·정보·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다시금 새로운 지식·정보·이미지 등을 생산하는 비물질노동에서는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의 구분이 경향적으로 소멸하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시간과 삶시간이 겹치는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생산물의 가치가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으로 더 이상 측정되기 힘든 오늘날의 사회적 생산의 생산성은 생산적 주체의 역량 및 이러한 역량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경험·마주침·네트워킹 등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제 자본은 생산을 조직하면서 사회적 진보를 추동해온 그것의 역사적 소임을 다했으며, 생산적 주체의 활동을 통해 생산된 부를 수탈하는 식으로 존속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다시 말해 생산을 조직하면서 물질노동을 통해 생산된 가치로부터 잉여가치를 전유하는 식으로 임노동을 ‘착취’해온 자본이 오늘날에는 생산적 주체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활동을 통해 생산된 부를 ‘수탈’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것의 역할이 착취에서 수탈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본은 생산적 주체 역량의 발전, 생산성의 성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하여 이러한 발전·성장에 그것의 사활을 걸게 된다. 역으로 생산적 주체는 그/녀의 역량 발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든 더 큰 인적 자본이 되기 위해서든, 마찬가지로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이는 생산의 변화에 대한 크고 거친 요약이며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이러한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했듯 이 글에서는 이 변화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로서 받아들이고 이제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3. 인구 전체의 프레카리아트화

생산의 변화는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가 다시금 인구의 상당수의 프레카리아트화와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오늘날 자본의 자기증식 방식이 생산의 조직 및 이러한 조직에 입각한 임노동의 착취로부터 생산적 주체의 자율적·협력적 활동을 통해 생산된 부에 대한 수탈로 변화된 것이 맞다면, 정규직 노동의 감소와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 즉 노동의 불안정성의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지속·심화·확대되는 현상일 것이다.

자본에게 중요한 것은 저 부를 수탈하기 위한 예컨대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 저작권과 같은 것이며, 1940~1970년대라는 예외적 기간에 투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었던 안정고용⁵⁾은 오늘날 자본의 자기증식 방식과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다수 연구자를 포함한 인구의 상당수의 프레카리아트화는 생산의 변화에 입각한 노동의 재구성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⁶⁾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는 이러한 생산의 변화, 노동의 재구성의 문제와 함께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지하듯 오늘날 불안정성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연구자만의 문제가 아닌 인구의 상당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생산적 주체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발전, 생산성의 성장이 낳는 불안정성의 정도와 성격이 주체마다 다를지언정 이러한 요구는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규직에게도 긴장과 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오늘날 극소수를 제외한 인구 전체가 불안정성에, 스트레스와 불안, 긴장과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대다수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5) 찰리 포스트, 「불안정은 노동계급 전체가 겪는 문제다」, 『마르크스21』 17, 71쪽 참조.

6)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가 현시대 자본주의적 노동사회의 변형 및 재구성의 핵심 동역학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용택,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오 민중신학」, 『신학사상』 196, 2022, 287쪽 참조.

변화를 모색하는 작업 역시 극소수를 제외한 인구 전체가 프레카리아트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문제시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한다면,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는 인구 전체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현실의 중요한 일부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이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고리가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이 제시될 때, 비로소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구 전체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대안으로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

그런데 스트레스와 불안 등 프레카리아트화의 폐해가 분명하며 그리하여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러한 변화를 위한 구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같은 것만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노동의 불안정성의 증가가 생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노동의 불안정성이 지속·심화·확대되고 있는 현상이라면, 생산체계가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의 감소와 정규직 노동의 증가를 통해 인구 전체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의 생산 현실에서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정규직 노동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즉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를 비정상성·정상성에 입각하여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필요로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구호의 바탕에는 비정규직 노동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정규직 노동은 정상적인 것이며, 비정규직은 패자이고 정규직은 승자라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⁷⁾

필요한 것은 이러한 판단을 역전시켜 오늘날의 생산은 원리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생산에는 구조적으로 비정규직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런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하여 인구 전체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서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구 전체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논리로서 제시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주지하듯 불안정성의 정도와 성격이 다를지언정 예컨대 승진이나 연

7) 이진경, 「프롤레타리아트와 프레카리아트: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대칭성에 관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9(1), 2012, 190쪽; 박주원, 「프롤레타리아트에서 프레카리아트로?: 우리 시대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현상과인식』 45(1), 2021, 82쪽 참조.

구비를 위해 혹은 그전에 짚리지 않기 위해 정규직 교수에게 강제되는 매년 몇 편 이상의 논문과 그 밖의 업무가 이들로 하여금, 비정규직 연구자일 때와는 물론 그 의미가 다르더라도 어떤 점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일종의 수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한다면, 정규직화는 바람직한 것일 수도 없다. 달리 말한다면 연구자를 포함한 생산적 주체에게 역량의 발전과 생산성의 성장을 요구하고 강제하는 오늘날의 생산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닐 수 있다.

5. 새로운 조직화의 필요

위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자의 조직화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이 반드시 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모델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나 이 모델이 산업별·직종별 노조 같은 초기업적 노조이든 기업별 노조이든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 속에서 사측과 노측, 연구자의 경우에는 대학과 교수의 대결과 협상의 구도를 가진다면,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 연구자, 독립연구자와 대학원생 등 프레카리아트 연구자의 결집, 그리고 극소수의 정규직 교수를 제외한, 삶의 재생산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했더라도 과연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가를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어찌하면 오늘날 상당수에 이를지 모를 정규직 교수와의 결집은 노동조합을 범례적 모델로 하는 조직화의 방식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한국비정교수노동조합과 대학별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대학 내의 대표적 프레카리아트 연구자 조직인 대학별 비정규직 교수노조 분회 이외에도 비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 연구자, 독립연구자와 대학원생, 그리고 정규직 교수까지도 결집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직화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연구자로서 활동하지만 예컨대 대학에 소속되지 않고서 연구용역 같이 일시적으로 지속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연구자나 전문학술서를 번역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번역가로서의 연구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과의 임노동 관계를 중심에 두고 사고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연구자가 존재한다. 이들을 모두 프레카리아트 연구자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자 조직 역시 대학과의 임노동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모델만이 아닌 또 다른 방식의 조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6. 공동 대응의 과제

아울러 연구자에게 강제되는 역량 발전과 생산성 성장 그리고 이러한 발전·성장의 결과로서의 연구업적 대한 요구가 생산적 주체의 역량 발전과 생산성 성장에 의존하면서 자기증식하는 오늘날의 자본이 인구 전체에게 강제하는 성과와 실적에 대한 요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연구자 조직은 오늘날의 학계의 문화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오늘날의 생산, 자본의 자기증식 방식에 대한 비판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후자의 비판을 프레카리아트화되고 있는 인구 전체와 어떻게 함께 수행하면서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프레카리아트 연구자는 프레카리아트화되고 있는 인구 전체의 중요한 일부로서 우리 모두를 프레카리아트로 만들면서 자기증식하고 있는 자본에 비판적이어야 하며, 인구 전체의 일부로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프레카리아트 연구자로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돌봄·교육·의료·홍보·통신·보험·배달·여가·오락·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레카리아트 및 역량 발전과 생산성 성장 압박 하에서 끊임없이 성과와 실적을 요구받으며 실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만성적 피로에 젖어있는 정규직 교수·노동자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그래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연구자인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나아가 인구 전체에게 알리고 납득시키며 그 연장선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일이다.

사실 연구자가 노동자라는 것이 분명하더라도 예컨대 대표적인 프레카리아트 연구자인 강사의 경우 그 노동의 성격이 일반 근로자의 그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⁸⁾ 이러한 다름에도 불구하고 프레카리아트 연구자가 프레카리아트화하는 인구 전체 및 위의 같이 끊임없이 성과와 실적을 요구받으면서 불안정성에 시달리는 정규직 교수·노동자와 함께 그 정도와 성격이 분명 다를지언정 이러한 불안정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불안 등의 문제에 과연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7. 지향점으로서의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그 구체적 방안은 구체 현실을 고려하면서 모색해야 하겠지만, 원리적으로는 오늘날의 생산의 변화가 없다면 어떤 식으로든 다시금 불안정성과 불안 등을 야기하는 안정 고용 같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용으로부터의 해방 혹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자체를 추구하는 것, 아니 이러한 해방을 가능하게

8) 권혁,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법학연구』 51(3), 2010 참조.

하는 길을 고민하여 이를 조금씩 추구해가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만약 고용으로부터,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연구자를 포함한 인구 전체의 프레카리아트화에서 비롯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물론 이것이 프레카리아트화로부터 비롯되는 다른 많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미 있는 실천들을 도외시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컨대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 교수 사이의 현격한 임금의 차이를 줄이고 비정규직 교수의 노동이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한 운동과 입법과 같은 것은 분명 중요하다. 이는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구분 아래 정당화돼온 노동의 위계를 문제시하면서 노동'의' 해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더 높은 보수를 받거나 나아가 고용 안정을 일정부분 쟁취하더라도 생산의 변화가 없다면 불안정성과 불안 등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자의 고용 안정 역시 인구 전체의 삶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어떠한 당위와 같은 것으로 제시된다면 사회적으로 지지를 얻기 힘들 뿐더러 전술했듯 인구 전체의 프레카리아트화를 추동하는 오늘날의 생산의 경향상 이를 달성하는 것은 진정 어려운 일일 수 있다.

8. 인구 전체의 삶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공공서비스의 심화와 확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지향 하에 연구자가 그 일부인 인구 전체의 삶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자·비연구자의 모두의 과제로서 예컨대 공공주택·의료·교통·돌봄·교육·보건 등의 공공서비스를 심화·확대하고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일부는 시민이 자체적으로 제공·생산·공유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지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연구자가 담당하고 기획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공공기관은 이를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제공·생산·공유의 다른 상을 만들어가면서 삶을 재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과 같은 공적인 것(the public)에 축적된 자원과 정보, 재화를 인구 전체의 삶의 안정적 재생산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를 포함한 인구 전체의 필요를 반영하는 공공서비스의 심화와 확대는 프레카리아트화가 가져오는 불안정성과 삶의 재생산의 위기를 해결하기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작지만 중요한 단초를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 안에서 가능할 수 있는 실천과는 구분되는, 예컨대 위의

지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학 밖에서의 실천과 같은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대학 안팎에서의 실천이 필요하며 특히 연구자를 포함한 시민 일반의 삶의 불안정성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⁹⁾

9. 커먼즈 운동으로서의 연구자 운동

물론 이것이 인구 전체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보다는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 해결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는 실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프레카리아트 연구자 및 오늘날의 학계의 문화를 비판적으로 보는 정규직 교수 등을 포함한 연구자들의 실천은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실천은 전술했듯 대학 안에서의 정규직 노동을 정상적인 것으로, 정규직을 승자로 전제하고 이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대학 안팎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오늘날의 생산의 현실에서 정도와 성격은 다를지언정 어떤 식으로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들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집하는 것, 그리하여 이러한 결집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통적인 것(the common), 커먼즈(communs)를 구성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며, 그 실천의 내용은 커먼즈를 구성한 연구자들이 공통의 문제를 공유하고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면서 결정될 것이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와 함께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이 커먼즈 운동으로서의 연구자 운동을 대표하면서 연구자 운동에 새로운 결을 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에는 연구자 사회주택, 연구자 공제회, 연구자 퇴직연금에 대한 구상¹⁰⁾과 R 커먼즈 합정의 운영 등을 들 수 있다.¹¹⁾ 이러한 운동은 더 이상 대학 등에서 안정적 고용을 기대할 수 없는 프레카리아트 연구자의 불안정한 삶을, 연구자들이 스스로 타개해나가기 위한 활동 혹은 예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는 연구자 사회주택과 같이 연구자들이 공적인 것과 함께 타개해나

9) 연구자의 삶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를 증진하려는 활동의 경우 그것이 인구 전체의 삶의 안정성을 공통적으로 증진하는 활동의 일환으로서 제기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예컨대 연구자의 집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구자의 삶의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자 복지법은, 프레카리아트 연구자만이 아닌 프레카리아트화하는 인구 전체의 삶의 안정성을 공통적으로 증진하는 활동의 일환으로서 혹은 인구 전체의 삶의 안정성을 공통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서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때, 비로소 그것의 입법화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10)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집 회원 인터뷰5 (김민환 운영위원)」, 『연구자의 집 뉴스레터 5호』, 2022.11.31. <https://scholarscommons.notion.site/> (검색일: 2022.12.9.)

11) 물론 이외에도 연구자의 집의 연구자 운동에는 2021년 11월 16일 발표된 연구자 권리선언이나 연구자 복지법 구상 등이 있지만, 상기한 사례들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커먼즈 운동으로서의 연구자 운동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기 위한 활동이었다.

연구자의 프레카리아트화라는 문제는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구 전체의 프레카리아트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라는 논리를 마련하면서 연구자의 집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자 조직이 여러 활동들을 함께 전개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